

부처님 오신날 불기 2543년



믿음 확고... 교리이해 실천 부족

지성화 뚜렷... 이타행 미흡

설문결과 평가



정병소 <동대 교수·한불련 이사장>

과거의 불교인들은 흔히 '기복성'을 그 특징으로 꼽아왔다. 특히 이기적 기복성은 호국불교의 병폐로 지적되어 왔다. 그러나 이번 설문조사 결과 정기적으로 사찰을 찾는 불자들은 조사 대상자의 82.7%에 달했다. 또 재적사찰이 있다는 응답자 또한 71.3%에 이른다. 이들은 대부분 정기적으로 경전을 접하고 있으며 체계적인 교리공부에 몰두하고 있다. 즉 과거와 같은 형태의 맹목적 불교관 대신에 뚜렷한 불자로서의 자기 확신이 나타난다.

신행경륜과 신심 불일치

흔히 오랜 신행경륜이 굳건한 신심과 정비례한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오래된 신자라고 해서 정기적으로 사찰을 찾은 것은 아니었다. 또 어느 정도 보시를 하는가하는 문항에 대해서 갈 때마다 한다는 대답은 절반 수준인 56%였다. 이들 대상자들의 신행연륜을 분석해 본 결과 불교입문 5년 미만인 25% 10년 미만인 35%였다. 30년 이상은 6%, 40년 이상은 4%에 불과했다. 즉 갈수록 보시정신이 퇴색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바람직스럽지 못한 것이고, 불교나눔의 무주상보시에 대한 확고한 인식결핍이라고 볼 수 있다.

불자들의 신행활동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 참선 20%, 염불(기도) 35%, 경전공부 54%, 사회봉사 16% 등이었다.

교리공부 여전히 필요

실제로 조사대상자들의 대부분은 이들 신행활동중 여럿을 겸수(兼修)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다양한 불교신행의 조화라는 관점에서 바람직스러운 현상이다. 호국의 불교가 종파주의를 지양(止揚)해 왔다는 불교학자들의 주장이 설득력있는 통계수치로서 나타난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신행생활에서 강조해야 할 부분을 묻는 설문에서 응답자들은 압도적으로 교리공부(63.2%)를 들었다. 이것은 결국 한국의 사찰들이 여전히 교리공부에 등한시한다는 반증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미래의 법회운영은 이와 같은 대중심리를 적절히 섭렵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불교교리의 핵심은 윤회설이다. 그러나 윤회를 믿는다는 불자는 56%. 어느 정도 믿는다는 어정쩡한 대답이 38%. 아예 안 믿는다는 대답도 6% 정도이다. 이 점은 불교신행 동기와 맞

물려 해석이 가능하다. 즉 견성성불을 목표로 한다는 대답은 22%에 불과하였지만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라는 대답은 72%였다. 이점은 한국의 불자들이 지성화되었다는 반증인 동시에 이타행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무관심하다는 증거이다.

오계를 받은 수계자들을 대상으로 과연 재가오계를 어느정도 지키는가 확인해 보았다. 예상대로 지키는 이들이 19%뿐이었다. 지키려 노력한다는 응답이 76%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재가불자들이 그와 같은 성향속에 있다고 판단된다. 지키려는 노력이 나뉠 것은 없었지만 이미 어느 정도 어기고 있다는 뜻도 된다. 그 가운데 지키는 응답자를 성별로 분석해 보았다. 전체 응답자 대비하여 남성은 12%에 불과하였지만 여성은 큰 무배에 가까운 23%였다. 따라서 윤리의식의 면에서는 여성불자가 단연 앞섰다고 말할 수 있다. 다만 마지막 불음주(不飲酒)가 여성쪽에 강력하게 유리했을 개연성은 있다.

한국불교 미래 긍정적

우리나라에 종교분쟁이 있을 수 있다고 대답한 비율은 50%였다. 즉 많은 불자들은 여전히 서양종교의 극성스러운 선교전략에 대해 회의와 비판의 의식을 지니고 있다고 보여진다. 한국불교의 미래에 대해서는 72%가 낙관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 물론 이 점은 국수주의(國粹主義)적 경향 때문이기도 하지만 자신의 종교인 불교에 대한 만족도도 볼 수 있다.

불교에 입문한 시기를 묻는 설문에서는 30대, 40대가 거의 절반을 차지하였다. 또 불교를 믿게 된 계기 또한 스스로의 선택이 74%로 가장 높았다. 물론 이 대답은 신뢰성의 문제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스스로의 판단이 가장 중요한 몫을 차지한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포교 방향은 30대, 40대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즉 전후세대를 위한 현대적 번역경전, 구대의연한 법회의식 탈피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21세기'라는 말이 인류의 화두가 된 지는 이미 오래 되었다. 혼돈과 희망의 교차점에 서 있지만, 불자들의 지향점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이해하고, 이를 실천에 옮겨 깨달음에 이르는 것에 있음은 당연하다.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한국불교연구원과 현대불교신문은 오늘 우리의 신행을 점검하고 21세기 한국불교 신행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재가불자 신행의식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편집자 주>

현대불교신문사·한국불교연구원

재가불자 신행의식 설문조사

불자들이 10명 가운데 7명은 체계적으로 교리공부를 했으면서도 교리의 체계적 이해와 이웃을 위한 보시의 실천은 아직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면서도 사회봉사를 중요한 신행활동으로 여기고 있다. 응답자의 82.7%가 매월 1회 이상 사찰을 찾았다. 이같은 결과는 사단법인 한국불교연구원과 본지가 실시한 재가불자 신행의식 설문조사를 통해 나타났다.

보살행 실천 프로 시급

물질뿐만 아니라 지식이나 기능을 나누는 보살행을 잘 실천하고 있는지는 물음에 18.5%의 응답자들만 그렇다고 답했다. 어쩌다 실천한다거나(44.5%) 이론으로는 알지만 실천이 어렵다는 응답이 27.6%에 달해 보시바라미를 실천키 위해

시했다. 이 질문(복수 응답)에 범회 참석은 67.2%, 경전독송·교리공부 54.5%, 염불 35.1%, 참선 20.2%, 사회봉사(보시의 생활화) 15.8%, 포교 9.8%의 분포를 보였다.

이에 따라 응답자들은 수행과 신행에서 강화해야 할 부분(복수응답)으로 교리공부(63.2%)와 사회봉사(54.3%)에 비중을 두었다. 즉 불교적 가치관의 확립과 자비실천을 불교인의 큰 덕목으로 꼽은 것이다. 이어 참선·염불(34.1%), 법회 등 사찰행사 참여(33.3%), 합장 발우공양 화장 등 불교의식의 생활화(23.5%), 전법(20.0%)의 순으로 중요도를 매겼다.

개종 생각 한 일 없다

개종에 대해서는 86.3%의 응답자들이 생각해본 적이 없었다고 답했다. 또 68.4%

바른삶 위해 불교신행 72%

30~40대 입문 54%

연령층별 포교대책 세워야

사찰이나 불교단체의 관심과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종 직능모임의 구성과 법률의 상담서비스를 실시하는 장의 마련이 대안으로 제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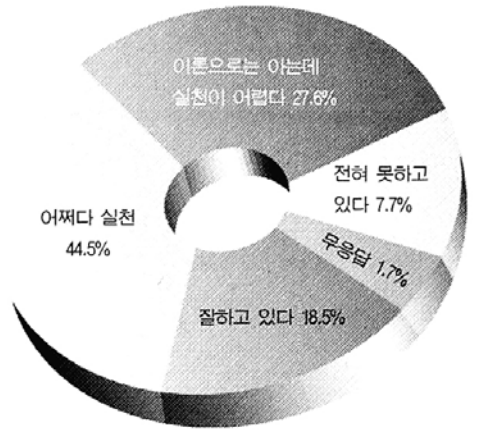
재가오계를 대부분 지킨다(18.7%)거나 지키려 노력한다(76.8%)고 답해 거의 모든 불자들이 생활의 지침으로 삼고 있음을 보여줬다. 대부분 지킨다는 응답자 가운데 여성불자들의 비율이 남성불자의 2배로 나타났다.

이번 설문을 통해 불자들은 평소 신행활동을 주로 법회 참석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사찰과 불교단체의 수행 및 신행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과제로 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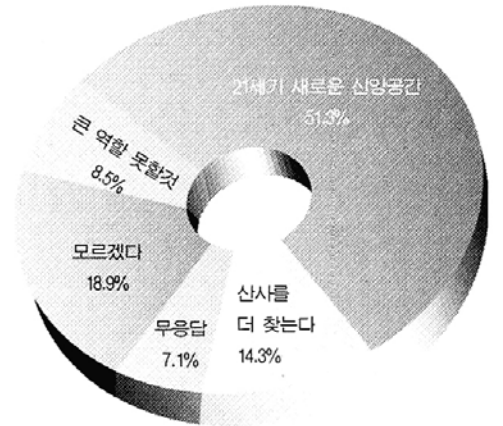
의 불자들이 자녀를 사찰에 보내고 있거나 보낼 예정이라고 답해 불교인들은 불교를 믿는 것에 대해 매우 강한 신심을 보였다.

기복적 요소도 극복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사주·관상·점을 보느냐는 질문에 어려운 일에 직면하면 보냈거나 수시로 본다는 응답이 12.1%에 그쳤다. 10년 전 같은 질문(불교신문)에 42.8%의 불자들이 응답한 것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월간 <여성불교>가 지난 1월 여성불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 '자등명 범등명(自燈明法燈明)'의 가르침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보여줬다.

■보시 바라미 실천



■인터넷 사이버 법당에 대한 의견



"반야심경 이해" 40%

그러나 교리 이해의 면에서는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있음을 드러냈다. 전생과 윤회를 믿는다는 질문에 55.9%의 응답자들이 믿는다고 답했다. 어느 정도 믿는다는 불자가 37.6%에 이르렀다. 불교에서 자신의 행위에 의해 업을 쌓고 업이 윤회한다고 가르친다. 불교의 핵심적인 교리인데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불자들이 의외로 많게 나타났다.

윤회를 믿는다고 응답한 290명의 입문, 경륜 분포를 보면, 5년 미만 58명(20.0%), 10년 이내 109명(37.6%), 20년 미만 72명(24.8%), 30년 미만 24명(8.3%), 40년 미만 12명(4.1%), 50년 이상 7명(2.4%)으로 목은 불자일수록 오히려 낮게 나타났다.

불교를 신행하는 이유를 바른 삶을 살기 위하여 라는 응답이 72%를 차지했다. 견성성불이 신행의 이유라고 답한 응답자는 21.8%에 불과했다. 불교신행의 근본이유가 견성성불에 있음을 알고는 있으나, 현실적으로 쉽지 않거나 깨달음을

스님들의 몫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불교의식 때마다 봉독하는 반야심경의 뜻을 이해(39.9%) 또는 반쯤 이해(46.2%)하고 있었다. 13.9%는 잘 모른다고 응답했다.

불교사상의 핵심인 반야심경을 응답자의 46%가 반쯤 이해하고 있음은 주목할 점이다. 반야심경 이해도는 교리를 체계적으로 배웠다는 불자들이 69.9%에 이르는데도 여전히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이해하기위한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는 이유를 뒷받침하고도 남는다(63%).

신행 정례화 확산

불자들의 불교입문 시기는 30대가 30.1%, 40대 23.7%의 순으로 나타났다. 입문 시기가 30, 40대에 주로 몰려 있음은 인생의 여러 경험을 거치며 불교를 삶의 지침으로 삼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불자가 된 동기를 묻는 질문에 74.4%가 스스로 선택했다는 답과 이어진다. 즉, 30~40대에 이르러 불교를 스스로 선택하고 있다. 부모, 친구, 배우자의

두가지의 크고 불가사의한 작용을 일으키고 있는,.....

"팔괘(八卦) 만다라 액자의 신비(神祕)"

우연히 발견된 팔괘 만다라 액자의 신비스러운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 만다라는 제불보살님과 신(神)들이 들어갈 수 있는 성역 공간으로서 이는 살아 있는 우주의 삼라만상 그 자체이며, 우주의 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다라가 있는 곳에는 항상 우주의 충만한 생기(生氣)가 가득 모여 있습니다. 집안에 만다라를 걸게 함은 이러한 우주의 기(氣)가 집안에게 가득 채워 줍니다. 그러나 만다라 자체만 걸어 놓으면 상서로운 우주의 생기가 그 안에서 그대로 머물고 있는 상태로 지속되기 때문에 이 기(氣)를 끌어내어 집안 전체에 기(氣)를 고르게 확산시키는 방법으로 팔괘를 도입하여 합일시킨 결과, 놀랍게도 불가사의하고 신비스러운 작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팔괘 만다라 액자



◎ 보급가 : W 300,000 ⇒ W 180,000
그동안 30만원에 보급했던것을, 이제 18만원에 보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급처 : ❶ 성지관음회 (회장 혜천)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 : (0335) 334-9490, 334-9491

야간 : (0342) 706-3060

신비한 작용

첫째 가정, 사무실, 사업체 등에 걸어 놓은 결과 사악한 기운을 추방하고 불길한 운세를 흡수시키면서 악하고 침체된 기(氣)를 활성화시키고 강화시켜 사업이 활발해지고 재물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음식점이나 가게 등에 걸어 놓으니, 외부의 좋은 기를 끌어당기는 영향 때문인지 고객과 돈을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둘째 집안의 환관, 거실, 안방에 걸어 놓으니 집안 전체에 흐르는 수맥의 영향이 완전히 차단되는 작용이 일어났습니다. (이 실험을 직접 본 집에서는 밤마다 깔아놓았던 동판은 모두 견어내고 있습니다.)

◎ 팔괘 만다라의 수맥 차단 실험은 2명의 수맥 전문가를 초빙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실험 테스트를 거친 결과로서 불가사의한 이 현상을 믿지 않을 수 없게 하였습니다.

◎ 팔괘 만다라 액자는 아름답고, 고급스러운 외양을 갖추고 있어 어느 가정이나 사무실에 걸어 놓아도 어울리는 분위기를 자아내도록 조성되었습니다.

· 불자들간의 선물·생일선물·개업선물·집들이 선물
· 연말연시 선물 등으로도 단순한 액자가 아닌 행운과 재운과 건강을 불러오고 보강해주는 액자라는 점에서 좋은 선물이 될 것입니다.

물론 우선적으로 자신의 집에는 필히 걸어 놓으시는 것을 잊지마십시오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단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풍수원리에 맞지않는 주택이나 상가, 사무실등에 적용하면 재운과 복을 일으키는 운세로 바꾸어 놓고, 현재의 조상님 산소자리에 적용하면 생기있는 땅의 명당자리 산소로 변하게 하는 방법이 수록된 책자"

『상기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책자 내용

- 1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 2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 3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 4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 5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 6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 7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 8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 9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 10 음택(산소)풍수에 적용하면 현재의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황동판 팔괘만다라와 팔괘 불탑다라니의 신비
- 11 황동판 팔괘만다라와 팔괘불탑다라니의 산소적용방법
- 12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황동판 팔괘만다라와 팔괘불탑다라니 처방비법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 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상기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 이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2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비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자 내용

- 1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 2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 3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 4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 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 나는가?
- 5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일체지 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 6 특별 천도제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 7 각 방편들의 내용설명 및 사용방법.
- 8 집안에서, 하는 영가 천도 기도방법.
- 9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내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 10 특별 천도재를 지내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상담문의 및 책자 신청 ❶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 : (0335) 334-9490, 334-9491

야간 : (0342) 706-3060